

도 내년도 국비 4조4,000억원 확보 확실

정부 부처·국회의원실 등에 예산 반영 결과 확인

원주~강릉 복선철도 등 SOC에 2조3,000억원

복지 7,000억 환경·관광 5,000억 농경 4,500억 반영

도 관련 내년 국비 확보액이 4조4,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25일 본보가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등에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결과를 문의를 취합한 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SOC 예산 등이 크게 증가(본보 25일자 1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철도

등 도 SOC 예산은 올해 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3,0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복지 분야에 7,000억원, 환경·관광 분야에 5,000억원, 농경 분야에 4,500억원, 경제 분야에 2,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에 1,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부

처에서 소요액 5,000억원보다 낮은 3,000억원만 반영했으나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4,650억원으로 확정됐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은 당초 부처예산에 700억원만 반영됐지만 기재부에서 1,000억원을 증액해 1,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중앙선(원주~제천)도 부처예산은 400억원에 불과했지만 기재부에서 1,2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밖에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는 1,423억원, 태백선은 716억원, 동해고속도로는 76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국도 확·포장 예산의 경우 38호선(제천~동해)에 실질소요액 800억원보다 많은 900억원, 국도 47호선(철원) 267억원 등 당초보다 증가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신설에는 1,000억원이 최종 배정됐다.

고성 국회의정연수원은 난항 속에 부처에서 24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재

부가 8억5,000만원으로 줄여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폐광지역의 관광 사업 예산은 누락됐고, 폐광지역경제자립형 사업은 지난 18대 국회 때 200억원을 약속받았지만 30억여원만 반영됐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세부 예산 확보도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조7,000억원 규모의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86억원, 김진태(춘천) 의원은 춘천 도시재정비 기반시설사업 150억원,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 91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인 4조4,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강원도 발전 원년에 맞게 치밀한 예산 편성으로 도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자



◇강원일보사는 25일 전국체전에 대비해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훈련 중인 도 육상대표선수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희종 강원일보사장과 정동기 도 육상경기연맹회장,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선수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상위입상의 결의를 다졌다. 김진영기자

“강원육상 전국체전 선전 응원합니다”

이희종 강원일보사장 도육상경기聯 도 대표 선수단에 격려금

“강원육상의 저력 대구에서 마음껏 펼쳐주세요.”

강원일보 이희종 사장은 25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후원경기단체인 강원도육상경기연맹(회장 :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도 대표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강원일보사는 격려금을 지난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강원육상이 전국체전에서 강원도의 등위부상 최일선에 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종 사장은 이날 제93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도 대표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강원육상은 종합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도민들의 기대

에 부응하고 강원체육 종합 8위 달성에 기여했다”며 “여기 모인 선수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난해 이상의 성적을 거둬 강원육상의 우수성을 전국에 떨쳐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여러분의 선전을 강원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혹시 못 하더라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으로 응원하겠다”며 “힘들겠지만 평소 자기 기록보다 한 발 더 뛰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정동기 도육련 회장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강원일보의 격려가 우리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하는 마

음으로 선수 모두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도체육회 김덕래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매년 물심양면 도와주는 강원일보사에 감사하며 육상은 물론 강원선수단 모두 최선을 다해 강원도의 목표등위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달식에는 김동주(정선군청 감독) 도육련 전무이사, 유명종 고문 등을 비롯해 강원대 춘천농공고 강원체고 동해상고 등 도 대표 선수·지도자 40여명이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한편 제93회 전국체전은 다음 달 11일 대구에서 개막, 17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며 도선수단은 앞서 5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결단식을 열고 장도에 오른다. 김보경기자

도 내년 예산 4조4000억 확보

당초 목표액 달성

SOC 2조3000억 등

도가 내년도 예산 4조4000억원 규모를 확보, 당초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최초로 4조원대 예산 시대를 열었던 도는 올해 목표했던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도의 예산 규모는 4조4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SOC 2조3000억원 △복지 7000억원 △환경·관광 5000억원 △농정 4500억원 △경제 2000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1000억원 등이다.

SOC 부분의 경우, 원주~강릉 복선철도 4650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제2영동고속도로(1300억원) △동서고속도로(1400억원) △국도 6호선 등 10개 노선(3700억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철도(1700억원) △원주~체천 중앙선(1200억원) 등이다.

동계올림픽 예산은 당초 요구액(1600억원)보다 600억원 적은 1000억원이 반영돼 경기장 건설 등의 예산으로 투입된다. 특히 예산 미반영이 우려됐던 동해·묵호항 항만조성 사업의 경우 방파제 설계비로 87억원이 막판에 반영됐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100억원),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사업(110억원)의 예산 반영은 불발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반영이 시급해졌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예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 기확보된 예산(50억원) 집행이 사실상 어렵게 돼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결국 예산 문제를 풀지 못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 예산 등도 신규 반영해야 한다.

김한수 도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도예산 확보 목표를 달성했지만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도 많다"며 "도 정치권과 함께 힘을 합쳐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